

“이번엔 당신들이 내 생명을 구했소!”

—연변병원, 다학과 협동진료로 88세 고령의 항미원조 참전 용사 긴급구조



연변병원 부원장 우해강의 손을 잡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정수암로인 / 연변병원 제공

올해 88세 고령의 정수암(程守岩)로인은 본지 2024년 11월 9일 6면(사회)에 발표된 [로병사의 이야기] (5) <정수암, 정전협정 체결 후 후방의 ‘특무잡이’ 능수로> 기사의 주인공이자 항미원조 참전 로병사이다. 최근, 기자는 정수암로인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가슴 아픈 사연과 함께 연변대학부속병원(연변병원) 의료진들의 극진한 치료를 거쳐 완쾌되어 퇴원했다는 가슴 뜨거운 소식을 동시에 접했다.

파스한 봄기운이 감도는 지난 14일, 연변병원 응급과과정사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항미원조 참전 로병사 정수암로인이었다. 이날 정수암로인은 3개월전 그를 생사의 고비에서 구해준 의료진에 감사기를 전달하고 고마움을 직접 전하기 위해 병원을 다시 찾았던 것이다.

다학과 협진으로 생명 사수

지난 1월 13일, 길을 건너던 정수암로인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했고 반흔수상상태에 빠져 곧장 연변병원에 실려왔다. 구급차에 실려온 정로인은 다리 골절, 뇌출혈, 특골·안면골 복합 골절, 그리고 기타 여러 골절 증상으로 판단되었다. 90세에 가까운 고령에 중박 외상은 치명적일 수 있었다.

병원에 달려온 연결 ‘로병사의 집’ 사업일군들을 통해 의료진은 이 로인은 항미원조 참전 로병로서 현재는 년로한 부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연변병원 부원장 우해강은 “정수암로인은 국가의 공신입니다. 나라를 위해 피땀을 흘리며 기여한 영웅은 저희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즉시 응급 복색 통로를 개통하고 다학과 응급치료 체계를 가동했다. 정형외과진료중심, 신경외과, 흉부외과, 안과, 이비인후두경외과 등 다학과의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모였고 로인을 위한 전문진료 방안이 제정되었으며 정형외과로 신속히 이송시켜 입원수속도 마쳤다.

신경외과 전문가들은 뇌출혈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더 이상의 신경 손상을 성공적으로 피했고 흉부외과, 안과, 이비인후두경외과 전문가들은 긴밀히 협력하여 특골 골절, 안와 골절(眼眶骨折) 및 비골 골절을 타당하게 처리하여 로인의 통증과 호흡곤란을 크게 완화시켰다. 정형외과진료중심 임흥혁치료팀은 정강이 골절에 대해 석고 고정을 진행함과 아울러 정밀한 물리치료를 전개하여 골절 부위가 안정적으로 유합되도록 확보했다. 주치의사 리해봉은 매일 3회 이상 병실을 방문해 통증 정도를 확인하고 정수암로인의 신체 상황에 근거하여 개인 맞춤형 재활훈련 계획을 세우고 로인이 일상활동 능력을 점차 회복하도록 도왔다. 간호팀은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수행하며 욕창을 방지했고 음식 조절부터 정서적 응원까지 꼼꼼히 챙겼다. “잡은 잘 주무셨나요?”, “아픈 데는 없으신가요?”라는 일상적인 물음들은 로인의 가슴을 훈훈하게 해주었다.

“고맙습니다! 병원에서 가족같은 온기를 느꼈습니다!”

3개월후, 정수암로인은 지팡이가 없이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회복되었다. 3개월전 이곳에서 생사를 오가는 위기를 극복한 정수암로인은 세폭의 감사기를 들고 자신을 진료한 의료진을 다시 찾았다.

“고맙습니다! 병원에서 가족같은 온기를 느꼈습니다.”

우해강 부원장과 정형외과 임흥혁 부주임, 주치의사 리해봉 등 의료진과 다시 만난 정수암로인은 감격스러운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참전

로병사다운 당당함으로 가득찼다.

우해강 부원장은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적을 무찔러 전공도 수차 세운 정수암로인의 손을 꼭 잡으며 “어르신은 나라의 영웅이며 어르신을 지켜드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신 것을 보니 진심으로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임흥혁 부주임은 “어르신들은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키고 우리에게 평화로운 삶을 창조해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의 영광입니다. 어르신의 강인함은 항상 저희를 격려하고 환자를 살리는 데 에너지를 부여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주치의사 리해봉은 “어르신께서는 매번 치료 때마다 누구보다도 잘 협조해주시고 재활훈련 또한 열심히 하셨습니다. 어르신의 강인한 군인정신이 치료에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의 군인정신은 우리 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바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수암로인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젊어서는 적의 총알을 맞고도 살았지만 이번엔 당신들이 내 생명을 구했소!”라고 말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환자와 가족들은 칭찬과 감동에 찬 눈길을 보였다. 의사와 환자의 따뜻한 재회 장면은 생명의 기적을 생동하게 재현했다. 의료일군들은 세심한 의술과 사심없는 사람으로 항미원조 참전 용사에게 건강을 되찾아주고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드렸다.

‘로병사의 집’ 두 녀성의 뜨거운 손길

이번 치료 과정에 또 다른 고마운 분들이 있었다. 바로 연결 ‘로병사의 집’ 당지부 서기이며 주임인 서숙자(오른쪽)와 해설원 아래걸이다. 교통사고 당시 정수암로인의 부인은 ‘로병사의 집’에



연길시당위 선전부 부부장 윤춘화가 ‘로병사의 집’을 방문해 서숙자(오른쪽)와 아래걸에게 감사기를 대신 전달하고 있다. / 서숙자 제공

급히 도움을 청했고 그들은 사고 직후 즉시 병원에 달려와 어려운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가족’으로서 로인의 곁을 지켜드렸다.

정수암로인이 병원에 입원해있는 동안 그들은 매일 병문안을 왔다. 아래걸은 정수암로인의 ‘딸’ 역할을 해오면서 여러 장의 치료동의서에 서명하고 의료보험 등 여러가지 번다한 수속을 처리해드렸다. 음력설을 앞두고 정수암로인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자 그는 사고자측과 협상하여 회복비와 재검진비를 받기로 상의한 후 1월 26일에 로인을 집에 모셔가 휴양하도록 했다. 그후 여러차례 재검사를 하면서 아래걸은 늘 거동이 불편한 정수암로인을 업고 드나들면서 정성을 다했다.

3개월후 정수암로인은 두폭의 감사기를 들고 연길시당위 선전부를 찾았다. 언론을 통해 ‘로병사의 집’의 큰 사랑을 널리 알리고 싶어하였다. 4월 15일, 연길시당위 선전부 부부장 윤춘화는 ‘로병사의 집’을 방문해 서숙자와 아래걸에게 감사기를 대신 전달했다. 로인은 감사기에 73세의 서숙자를 ‘로병사들 마음속의 좋은 서기’, 47세의 아래걸을 ‘로병사들 마음속의 착한 딸이라고 높이 칭송했다.

서숙자는 “로병사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감사기를 받게 되었는데 아주 감동됩니다. 이 감사기가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간재계시는 로병사와 렬사가족들을 위해 더 잘 봉사해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집니다.”라고 말했다.

아래걸은 “정수암로인이 진짜 저를 딸처럼 대해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딸’로서의 관심과 역할을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 리전 유경봉 기자

국가안전기관, 90여명 대중 표창 장려

15일, 국가안전부에 따르면 국가안전기관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안전 수호에 중요한 기여를 한 90여명 대중들을 표창 장려했다. 국가안전기관은 2019년부터 7년 연속 전국 범위에서 제보 공로 인원을 평의, 장려했다.

이번 표창과 장려에서 전국 90여명 대중이 각기 특별중대기여, 중대기여 혹은 중요기여 장려를 받았다. 각기 국가안전기관은 반간첩법, 국가안전 집해행위 공민 제보 장려 방법에 따라 해당 인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장려를 주었다.

그중 변경지역의 택시운전사 강모가 개인의 안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중대 간첩 혐의자와 영용하게 싸워 경매 간첩사전 해명에 협조한 공을 인정받아 특별중대기여 장려를 받았다. 산동성의 상업 종사자 왕모는 중대 기밀 유출 우환을 적시적으로 발견하고 제보하여 중대기여 장려를 받았다. 연해지역의 어민 로모는 바

다에서 경의 기밀도청장치를 건재내 중대기여 장려를 받았다. 북경의 대학생 서모는 국가기밀 판매자를 제보하고 안전우환을 적시적으로 제거하도록 협조하여 중대기여 장려를 받았다. 료녕성의 회사원 류모는 군사시설을 몰래 촬영하는 혐의자를 신고하여 중요기여 장려를 받았다. 절강성의 학자 석모는 경외기구가 우리 나라의 민감한 정보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훔친 것을 발견하여 중요기여 장려를 받았다.

이 90여명의 대중들은 전국 각지, 각 분야에서 온 군인, 교원, 의사, 공정사, 공무원, 학생, 농민, 어민 등이다. 16세 중학생부터 70세 퇴직교원에 이르기까지 각 전선종대 여러 분야의 대중들은 총체적 국가안전관리의 지도 아래 자각적으로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투쟁했으며 각자의 평범한 일터에서 국가안전을 위해 평범하지 않은 특수한 기여를 했다. / 신화넷

중의약 운동건강 보장 능력 지속 제고

1,300여개 2급 이상 공립중의원에 마사지와 설치

우리 나라에서는 중의약 운동건강 보장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다. 이미 2,000여개 2급 이상 공립중의원에 골상과(骨伤科), 침구과, 재활과를 설치하고 1,300여개의 2급 이상 공립중의원에 마사지와를 설치했다.

최근 국가중의약관리국 중서의결합및소수민족의약사 사장 엄화국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중의원 관련 부문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급성 허리 손

상, 무릎관절 외상성 활막염, 발목관절 손상 등을 포함한 일련의 중의학 우세 병종과 중의 진료 방안을 제정, 보급하여 중의약 운동 시스템 관련 질병 예방 진료 능력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했다.

동시에 건강촉진, 만성질환 예방과 재활에서의 중의학 운동양생의 작용을 적극 발휘했다. 2022년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의료체육융합 건강강화 행동을 가동, 실시하여 중의원에서 전통 체육 종목을 가르치고 재활 기간 환자들이 적합한 전통 체육 종목을 연습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전통 체육 종목이 전면적으로 일상생활에 융합되도록 추동했다. / 인민일보

샤와중 갑작스런 감전, 어떻게 방지할까?

—전기온수기 안전관리 체크 리스트 공개

최근 해남 락동현의 한 녀성이 SNS에 자신의 ‘충격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집에서 샤와중 갑작스런 감전으로 심장이 멈췄다. 다행히 사고 발생 당시 집에 가족이 있어 기적적으로 소생했지만 왼손에는 뚜렷한 화상 자국이 남았다.” 현재 그는 병원에서 진료중인데 의사는 전기충격으로 진단했다.

이 녀성은 자신의 이 사례는 매우 공유했 가치가 있다고 말하며 모두에게 전기온수기 사용 시 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루전 방지 보호 장치가 설치된 전기온수기는 루전이 자동으로 차단된다. 또한 반드시 전문가를 초청하여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루전 위험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1. 목록할 때 감전 어떻게 방지할까?

전기온수기의 표준화된 사용은 매우 중요하다. 장기간 사용, 정기적 점검을 하지 않거나 루전 보호 장치가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등 전기온수기는 매우 위험하다.

2. 전기온수기 구입 사용 시 주의점

▲ 불량 제품 구매하지 말아야
조치가 또는 중고 전기온수기를 절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불량 제품은 일반적으로 루전 보호 장치가 없거나 장치 고장났을 수 있다.

▲ 매달 스스로 점검해야
루전 보호 스위치에는 “I” 버튼이 있는데 버튼 아래에는 보통 ‘매달 한번 누르기’라고 적혀있다. 이 버튼은 ‘생명보장기’—모의루



시 생성 만화

전버튼이다. 이 버튼은 매달 한번씩 눌러 가정 전기선로등 루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모의하여 루전 보호 기능이 정상인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 전기온수기 마그네슘봉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수도물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전기온수기를 계속 사용하면 이런 물질들이 가열관 마그네슘봉에 부착되어 부식될 수 있다. 내벽이 부식되거나 가열관이 부식되어 구멍이 나게 되면 루전 위험이 있으므로 전기온수기의 마그네슘봉을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 기한이 지난 전기온수기 사용 금지해야
전기온수기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6~8년이며 수명이 초과된 후에 계속 사용하면 안전 위험이 발생하기 쉽다.

▲ 목욕전 전기 차단해야
물을 저장한 후 먼저 지정 온도로 끓인 다음 전원을 끄고 목욕해야 한다. 목욕하면서 가열하면 감전 위험이 높아진다. / 인민넷 - 조문판

장춘 헤민사회구역, 로년 웨딩사진 공익촬영 활동 전개

최근 장춘시 영창가두 헤민사회구역에서는 범성초상촬영관과 손잡고 로년 웨딩사진 공익촬영 활동을 전개

하여 사회구역 로부부들의 웨딩드레스 꿈을 실현해주었다.

이번 활동은 로인을 존경하고 사랑

하는 전통 미덕을 고양하고 사회구역로인들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하는 것을 취지로 하였다.

활동 당일 현장은 명절의 분위기로 들끓었다. 이른아침부터 현장을 찾은 로부부들은 직원의 따뜻한 안내하에 마음에 드는 정장과 웨딩드레스를 골라 입고 촬영 순서를 기다렸다. 촬영 과정에서 사진사는 인내성 있게 포즈를 잘 취하도록 로인들을 인도했다.

처음에 약간 쑥스러워하던 로인들은 사진사의 응원에 점차 긴장을 풀며 최선의 상태로 촬영에 응했다. 렌즈 앞에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기도 하고 서로 미소를 지어보이기도 하면서 함께 지내온 지난날을 회억하며 사진을 남겼다.

주빈 장로인은 “결혼 당시 어려운 여건으로 웨딩사진을 찍지 못해 아쉬웠어요. 이번 활동으로 소원을 풀게 되었네요.”라며 기뻐했다.

/ 길림일보

